

부산비엔날레 개선방안 공개토론회 기초발표 요약

① 총회 관련

【현 행】

총회는 사단법인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선임 승인 및 해임, 감사선출,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재산의 처분·매도·양도·증여·취득,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 승인 등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총회는 조직위원장인 부산광역시장, 부조직위원장인 부산예총회장, 부산광역시 교육감 2인을 포함하여 지역미술인, 문화인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8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의 자격은 임원회의 승인을 거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어 연 1~2회 개최된다.

【개선방안】

부산비엔날레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회원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및 상벌에 관한 규정, 회비납부 등과 같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회비 납부는 비엔날레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 있어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결정권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정관에 반영되더라도 당장에 시행하기 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회원들에게 회비납부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회원들의 다양한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에 상응하는 권리 또한 보장해주어야 한다.

② 임원회 관련

【현 행】

임원회는 부산비엔날레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업무집행, 사업계획 운용, 예·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사업비 편성,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비 이체사용 및 전용 등), 정관변경, 재산관리, 총회 안건 상정 등에 대해 의결하며 조직위원장 1인, 부조직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구성된다.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선출직 이사로 구분되며 조직위원장(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부산광역시립미술관장, 부산광역시 상공회의소 회장, 부산관광협회장, 한국예총 부산지회장, 미협 부산지회장 8인이 당연직 이사로, 선출직 이사는 부산교육대 명예교수, 前 부산비엔날레 운영위원장, (재)고은문화재단 이사장, 부산공간화랑 대표, 흥익대 교수 등 8명, 감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출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부조직위원장(2명)을 포함한 이사의 선출은 조직위원장의 추천으로 총회가 승인하며, 감사의 선출은 회원을 대상으로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임원회는 정기임원회와 임시임원회로 구분되며 연 4회 개최된다.

【개선방안】

임원회의 경우, 당연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대부분이 지역 미술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임원회의 경우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해야 하며, 현재 20인~30인으로 되어있는 이사 수를 15인~25인으로 조정하여 당연직 이사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사로 현실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국내·외로 확대하고 교수 편중에서 벗어나 작가,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와 세대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대표성과 함께 전문성, 다양성, 개방성**을 갖춘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사 수를 조정할 경우 당연직이사의 비중이 너무 높아져 부산 관계기관 인사들만 당연직 이사로 두며, 부산예총회장, 부산미협회장, 부산민예총회장 등 전문직인사는 선출직 이사로 선출해야 한다.

임원의 임기는 격년제라는 비엔날레 개최 주기를 고려하여 현행 2년 임기제에서 4년 임기제로 임기를 조정하고 부산비엔날레 운영위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참여시켜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관련

【현 행】

운영위원회는 행사실행을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사업별 추진방향, 기본계획, 출판작가 및 작품 등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다.

구성은 운영위원장과 부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전시감독, 전문위원장,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장, 부산시립미술관 관리과장 또는 학예연구관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조직위원장이 총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부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조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선방안】

운영위원회는 부산비엔날레의 중요 집행의결기구이나, 그 기능과 역할이 임원회와 중복되거나 불분명하여 유사하게 운영되므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운영위원회를 실질적인 사업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뜻을 상징적으로 포함하여 **명칭부터 집행위원회로 개정하고 집행위원장의 임기 및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집행위원장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비상근 명예직인 운영위원장을 상임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상임 가능한 유명, 전문 인사가 제한적이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 실행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권고한다. 또한, 2년의 임기도 비엔날레 개최 주기를 맞춰 4년으로 확대하여 집행위원장이 부산비엔날레의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운영위원 임기 또한 1년에서 3~4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속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전시감독은 매회 바뀌어도 운영위원장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③ 전시감독 선정절차 관련

【현 행】

현재 전시감독선정은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조직위원회 내부 방침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선정

가. 전시감독 후보군 조성 : 전시감독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후보를 압축하며
과년도 전시기획자로 구성

나. 전시감독 선정위원회(1차) : 경력서 검토 후 후보 압축(5~6명)

다. 전시감독 선정위원회(2차) : 전시기획서 검토 후 후보 압축(3명)

라. 조직위원장 승인 : 전시감독 최종 선정

※ 기타 전시기획자 선정방법 : 전시감독 추천→운영위원장 승인

【개선방안】

- 1안 : 현행체제에서, 조직위원장 승인 전에 임원회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제도 마련
 - ▷ 운영위원장 권한이 강화된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책임경영이 필요하므로 운영위원장은 전시감독 선정에 관여해야하며, 현행체제는 최종선정 이후 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부산비엔날레 최고의결기구가 총회/임원회이므로 조직위원장 최종 선정 전에 임원회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절차 필요
- 2안 : 임원회에 전시감독추천위원회, 선정위원회 등 인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권한 부여
 - ▷ 현행체제는 물론 향후 권한이 강화된 운영(집행)위원장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전시감독 선정에서 운영위원장의 독단적 선택일 될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 따라 임원회에서 전시감독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3안 : 조직과 행사의 새로운 비전 구축 및 조속한 안정과 책임경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위원장 책임아래 전시감독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전시감독을 조직위원회에 추천함
 - ▷ 집행과 운영에 관한 책임 경영이 필요하며, 현 단계 부산비엔날레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함. 중장기적으로는 위에 예시된 1안)을 거쳐 2안)의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운영위원장 선정 관련

【현 행】

현재 운영위원장은 정관 제3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조직위원장이 총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선정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조직위원회 내부 방침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선정

- 가. 운영위원장 후보 추천 : 공개 추천
- 나. 선정위원회 구성 : 내부인사, 외부인사 7인~9인 내외로 조직위에서 구성
- 다. 선정위원회 개최 : 공개추천 된 후보군 경력서 검토 후 압축(3명)
- 라. 조직위원장 선정 : 압축된 후보 3명 중 1명 선정
- 마. 총회 승인 : 최종 선정된 1인에 대해 총회 승인
(일반적으로 찬반 투표로 결정)

【개선방안】

-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공개추천으로 진행되는 후보추천방식을 공모 및 추천으로 변경하여 본인이 직접 공모할 수 있는 방법도 열어 둘 것

④ 기타 관련

부산비엔날레는 국비와 시비, 자체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행사이다. 향후 국비와 시비 지원금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며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금액의 비중이 커지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사업을 위한 재정적 후원을 받기 위해 부산비엔날레에 참여하는 후원업체 및 인사에 대해 **후원회를 두어 협찬금 확보에 있어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제2시립미술관인 **부산비엔날레 전용관**에 대해서는 **부산비엔날레가 부산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운영자금, 행사자금 등은 부산시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재)광주비엔날레나 (재)세종문화회관 등의 사례를 보면 전부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비엔날레가 운영 주체가 되어 수익사업을 통해 자체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전용공간이 없는 경우 격년제 행사운영을 위해 상설조직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고 학예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사무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비엔날레의 예술적 전문성 축적이 어렵게 된다. 또한, 재단법인으로의 전환, 현행 비상근 명예직의 운영위원장을 상임대표 이사체제로 전환하여 책임경영제 확립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부산비엔날레가 비중이 커지고 있는 자체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재정자립도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조직 및 예술적 자율성과 기획력 확보에 그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산비엔날레 전용 전시관이라는 목적과 용도에 **결맞은 전시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건립과정에서부터 비엔날레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무국을 사무처로 위상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전문가 영입, 차기 행사인 **2016년도 방향설정과 중장기발전방안연구를** 실시하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